『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10
pp.159-175 ISSN : 1229-9618

중국어 문화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제언*
— 호칭과 인사법을 중심으로

송지현**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문화교육
   1) 문화요소와 외국어 교육
   2) 문화적 배경과 언어습관
3. 중국어와 문화소통능력
   1) 언어 맥락 속의 호칭
   2) 호칭을 활용한 안부인사
   3)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첫인사
4. 나오는 말

【초록】
문화소통능력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 ICC)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언어 사용자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고는 중국어의 호칭과 인사법을 예로 들어 중국인의 언어습관과 소통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간과되어 왔던 문화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키워드】 문화소통능력, 중국어교육, 호칭, 인사법, 유머, 맥락

---

* 본 논문의 초고인 「중국어 교육의 문화결핍 현상 연구」는 2016년 11월 19일,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2016年度 大韓中國學會 秋季學術大會에서 발표되었다.
**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laoshi@anyang.ac.kr)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한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고 교류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와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언어습관, 비언어적 표현, 언어환경 등 문화요소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학습해야 한다. 외국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언어도 문화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 교육과 문화 학습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중국어 교육은 언어텍스트로 표현되는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언어 환경을 이해하고 중국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중국어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중국 음식이나, 차(茶), 술, 복장, 주거문화, 공연, 예술 등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공물 그리고 그 인공물과 관련된 생활양식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학습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인의 사유방식과 의사소통 방법 등 중국인의 언어생활 속에 숨겨진 문화요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온전한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우리와 다른 언어습관, 사유방식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가운데는 말소리로 표현되는 언어 텍스트보다 표정이나 몸짓, 손짓, 목소리 톤이나 말투, 그리고 억양 등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더 많다.[1]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과 학습에도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중국인의 언어습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

1)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s of Mehrabians)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1971년 그가 출간한 저서 《침묵의 메시지(Silent Messages)》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전달받는 정보 가운데 보디랭귀지 등 시각적인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이며, 목소리 톤과 같은 청각적 이미지가 38%, 그리고 말(spoken words)로 표현되는 텍스트는 단지 7%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93%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두산백과)

우리가 학습해야 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중국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 변화 등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을 수도 있다. 두렵거나 긴장하게 되면 목소리가 떨리고,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등 우리의 몸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정이나 눈빛, 호흡 등 다양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2] 우리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 보다는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소통능력 없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중국인의 언어생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중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2.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문화교육

문화는 수많은 문화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유형의 물질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과 사회관계 등 다양한 문화요소의 독자적인 기능과 그것들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 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정의는 쉽지 않다. 박종한(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습관범주’에서 문화는 인간이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생각이나 행동 상의 습관을 가리키며, 두 번째 ‘인공물 범주’에서 문화는 인간이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인공물을 가리키고, 세 번째 ‘기능 범주’에서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문화)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중국어를 교육하고 학습하는데 있어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문화요소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에 관련된 인공물의 범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가족과 친족 및 사회관계 등 습관범주에서 다뤄지는 문화요소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해 온 ‘사회관계’라는 문화요소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각각의 문화요소가 가진 독자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요소가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요소와 어떠한

---

2) 거짓말할 때는 불안감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평소보다 맥박이 빨라지고 침샘이 마르며 얼굴이 붉어진다. 식은땀이 흐르면서 피부 전기저항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 피노키오처럼 코가 커지기도 한다. 거짓말할 때 ‘카테콜아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이 분비되어 콧속의 조직세포가 조금씩 부어오르는데,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부어오른 섬세한 코 조직이 근질근질해져 손이 코로 향하게 된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거짓말할 때 평균 4분에 한번 꼴로 코를 만졌다는 연구보고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중앙일보, [과학의 향기] 거짓말 딱 걸렸어, 2006.09.1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48376)

유기적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문화요소와 외국어 교육

일반적으로 문화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화적 사실을 암기하는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3] 그리고 사물 중심의 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상황 중심의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contents)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콘텍스트'(context) 중심의 교육을 통해 중국인과 교류하고 소통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화 관련 교재를 살펴보면 '콘텍스트'(context)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고 대부분 어떠한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중국문화'와 관련된 서적[4]의 목차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찾아 볼 수 있다.

언어와 문자	요리	술	차	명절
풍속	건축	회화	공예	문학
지리	자연환경	신화	경극	음악
영화	정치	경제	역사	유물
대중문화	소수민족	사상	전통무술	복식

<표1> 중국문화 관련 서적에서 뽑은 대표적인 키워드

물론 교재마다 위에 제시한 키워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요소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어 관련 수업시간에도 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갖가지 항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평가를 위한 단순 암기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문화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지식으로 일상생활, 주거환경, 대인관계, 가치관, 신념, 태도, 신체언어, 사회적 관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어떤 한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지식은 엄밀하게 말해 상식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지식은 언어학습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3) 박종한(2012)은 우리나라 대학의 중국 관련학과에 개설된 중국문화 과목을 분석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yes24.com에서 '중국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도서의 목차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 25가지를 뽑았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지식의 분야와는 달리 이런 지식은 학습자가 이전의 경험에서 획득할 수 없었던 지식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선입견 등으로 곡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유럽평의회 (2010:115)

이 가운데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사회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가깝게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성간의 관계, 세대 간의 관계,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 등 혈연 이외에도 권력이나 결속으로 형성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규범과 언어표현방법 그리고 대화를 진행할 때 관습이나 금기 등이 있다.

문화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 맞는 적절한 언어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편폭의 제한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에 맞는 문화요소를 다 언급할 수 없으니 본고는 호칭과 인사말에 관련된 문화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문화적 배경과 언어습관

동양과 서양은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언어생활, 표현 방법 등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친구들에게 자신의 형을 소개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한국인의 경우는 “인사해! 우리 형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형의 ‘관계’를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서, 형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보다 나와 형 사이의 관계를 소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친구들은 “형,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게 된다. 친구들도 역시 형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냥 ‘형’이라고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을 호칭으로 사용해서 인사를 한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는 다르다. 설령 ‘This is my brother.’라고 소개한다 하더라도 이어서 반드시 형의 이름을 소개한다. 아니면 형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인사를 한다. 이때 친구들은 ‘brother’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동양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양 사람들은 각 개인과 개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5]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유머도 있다.

---

5) 리처드 니스벳의『생각의 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실험이 등장한다. “원숭이와 판다, 그리고 바나나가 그려진 석 장의 그림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로 관련 있는 것 두 개를 골라 묶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묶을 것인가?”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를 한 묶음으로 묶었고, 동양인은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다. 서양인은 원숭이와 판다가 모두 동물이고 같은 포유류에 속한다는 개체의 ‘속성’을 분석하여 분류하였고, 동양인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관계’에 주목했다.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김영서, 2004. / EBS 다큐멘터리『동과 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왜 사고방식이 다를까?』(송지현(2013)에서 재인용)

(2) 我问一个朋友 : "为什么外国人姓名中名字在前面，而中国人姓在前面？"
朋友告诉我 : "因为外国社会只看你是谁，不看你爸是谁。
而在中国，别人不管你是谁，他们比较在意你爸是谁！"
("왜 외국인들은 이름을 앞에 쓰는데 중국인들은 성씨를 앞에다 쓰지?"라고 내가 친구한테 물었다. 친구가 알려주기를 "왜냐하면 외국 사회에서는 네 아빠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그들은 네 아빠가 누구인지에 더 신경 쓰기 때문이야.)

흔히들 중국 사람들은 '꽌시'(关系)를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대 사람의 '꽌시'가 아닌 언어 습관과 문화 속에 숨겨진 '꽌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계 중심의 동양적 사고방식과 개인 중심의 서양적 사고방식은 외국어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이나 중국 학생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family(가족)'와 관련된 표현에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6] 'brother'와 'sister'가 등장하면 형과 남동생, 누나와 여동생을 영어로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는지 궁금해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소개할 때도 "우리 삼촌이야." "얘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제 선배예요."라는 식으로 관계를 소개하며, 소개하는 사람과의 관계만 알면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도 굳이 알려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서양의 언어습관은 이와 정 반대다. 관계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영어권에서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그냥 'brother', 'sister'라고 하면 충분하다. 굳이 older나 elder등을 써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와 어떤 관계이건 상관하지 않고 각 개인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주고 기억해야 하며, 다음에 만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인과 관계보다는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서양인의 상이한 사고방식이 언어표현과 소통방법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영어에서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외삼촌 모두 'uncle'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이모, 고모, 숙모도 모두 'aunt'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7] 서양에서는 관계보다 각 개인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를 낱말 하나로 심플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지만 서양에서도 각 개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만큼 명확하게 선을 그어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혼과 재혼, 입양, 대리모 등 다변화된 가족관계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배워야 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낱말도 다양해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혼과 재혼, 입양에 의한 가족관계를 굳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낱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

6) 이하 'family'와 관련된 영어 사례 설명 부분은 Sandringham College 고병록 선생님께서 조언해 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 주신 고병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7) 아이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aunty(=auntie)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3)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stepfather, stepmother
surrogate mother (대리모)
adopted child, adopted son, adopted daughter

동양에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특정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정한 관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습관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어를 배우고 가르칠 때도 어떠한 호칭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각각의 호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중국어와 문화소통능력

'문화소통능력'이란 다문화 사회의 제2언어 학습자들 또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언어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행동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원활한 교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8]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호칭 하나, 인사말 한 마디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어 교육과 문화 학습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다. 문자기호로 나타난 낱말과 문장 속에 숨겨진 문화적인 요소를 찾아서 중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1) 언어 맥락 속의 호칭

호칭은 인간관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호칭(이름)은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고,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능을 한다. 누구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사전이나 교재가 아닌 실제 언어 상황을 사례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대화 한 마

8) 영어로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라고 하며, 중국어에서는 '跨文化交际能力'라고 한다. 우리말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또는 '상호문화적 소통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본고는 '문화소통능력'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디 속에도 호칭이 가지는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다음 네 칸 만화 속 말풍선의 대화를 읽고 그 속에 숨겨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

만화 속 대화의 문화적 요소를 찾기 전에 우선 각 문장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하 배달부)이 초인종을 '叮咚'(딩동) 누르고 "王老先生有快递"(왕씨 영감님 택배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곧이어 집 안에 있는 사람(이하 집주인)은 인터폰으로 뜬금없이 "咿呀咿呀唷～♪"[9]라고 노래 한 소절을 부른다. 그러자 배달부는 획 돌아서며 "下一家是 …"라고 말하고 다음 배달할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때 다급해진 집주인은 "等等！对不起！我开玩笑的" (기다려요! 미안해요! 나 농담한 거예요)라고 이야기 한다.

아무리 중국어 실력이 좋아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가지고는 위 만화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마치 '협력의 원리'[10]를 따르지 않고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와 중국어 동요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영어 동요 "Old MacDonald Had A Farm"[11]을 중국어로 번역한 노래가 바로 "王老先生有块地"[12]이다.

(4)「Old MacDonald Had A Farm」

9) 노래 가사 가운데는 咿呀咿呀哟, 伊呀伊呀呦, 依呀依呀哟 등 의성어를 표기하는 글자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10) 그라이스(Grice)의 대화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합치되도록 대화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협력의 원리이다. (Grice,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Morgan, J.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pp.41-58.)

11) https://www.youtube.com/watch?v=5oYKonYBujg

12) https://www.youtube.com/watch?v=-hwJgbdD-2U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his farm he had a cow, E-I-E-I-O,
With a moo moo here, And a moo moo there,
Here a moo, there a moo, Everywhere a moo moo,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후략)

(5) 「王老先生有块地」
王老先生有块地，伊呀伊呀哟，
他在田边养小鸡，伊呀伊呀呦，
这里叽叽叽，那里叽叽叽，
这里叽那里叽，到处都在叽叽，
王老先生有块地 伊呀伊呀呦，(후략)

위 만화는 택배 배달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快递'와 '(一)块地'의 해음(諧音)관계를 이용해서 꾸며낸 유머다. 여기서 "王老先生有快递"는 "王老先生有块地"와 발음이 같다. 즉, '快递'를 '块地'로 바꾸면 Old MacDonald Had A Farm라는 동요의 중국어 가사 첫 소절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인터폰으로 "Wáng lǎo xiān·sheng yǒu kuài d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소절을 부른 것이다.

보통 이 만화를 해석하고 풀이할 때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王老先生有块地'라는 동요를 알아야 이 만화를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데, 동요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만화는 중국인의 호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배를 배달할 때는 택배 상자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을 보고 '王아무개씨' 택배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름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王先生' 택배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화에서는 배달부가 '王老先生'이라고 칭했다. 중국어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와 같이 '老'자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배달부가 '王老先生'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만일 이름 이외에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면 절대로 '老'자를 넣어서 부를 수 없다. 이 만화에서는 적어도 배달부가 '王老先生'에게 여러 번 택배를 배달했거나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과 배달부가 안면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장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王老先生'을 그냥 글자의 의미만 보고 '왕씨 할아버지', 또는 '왕씨 영감님'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발화능력을 키우는 형식언어 학습에 만족하지 말고, 적합한 언어환경과 사회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과 학습에는 음성, 어휘, 문법 등 언어학적인 지식 습득 이외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같은 의사소통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2) 호칭을 활용한 안부인사

중국어 유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로 드러난 글자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숨은 뜻을 파악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 언어습관 등을 알아야 한다. 아래 유머 속에 숨겨진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6) 叫爸爸
妹妹正在玩玩具，突然有人敲门。
打开门看是一位水电工，妈妈跟妹妹说：叫爸爸。
妹妹始终不动，直到爷爷奶奶也一直和她说：叫爸爸呀！
妹妹：感谢爷爷奶奶的照顾，爸爸！原来你才是爸爸！
妈妈：你这小孩在干吗？！我叫你上楼叫爸爸！修马桶的来了。

위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서 '叫爸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달라진다. 일단 '叫爸爸'만 빼고 해석을 해보자.

(6-1) 叫爸爸
여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보니 수도・전기를 고치는 기술자였다.
엄마는 여자 아이에게 "叫爸爸"라고 말했다.
여자 아이는 멈칫하고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역시 여자 아이에게
"叫爸爸呀！"라고 말씀하신다.
여자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당신이 바로 저의 아빠군요!"
엄마: "너 뭐하니? 얼른 올라가서 아빠 불러와, 변기 고치는 사람 왔다고."

'叫爸爸'를 '아빠를 부르다(불러오너라)'라고 해석하면 위 유머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내용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叫爸爸'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叫爸爸'는 '아빠를 불러오라'라는 말이 맞지만, 여자 아이가 이해한 '叫爸爸'는 '아빠라고 불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빠라고 불러'라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빠한테 인사드려라"라는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중국어에서 "叫○○"라는 말은 "○○에게 인사드려라"라는 뜻이 있다. 비슷한 유머를 하나 더 살펴보자.

(7) 叫爸爸
有一天小明跟同学在家里玩，突然，妈妈带了一个陌生的年轻男子来家里，
妈妈：小明！快叫爸爸！
小明：. . . . . .

妈妈：小明，快叫爸爸呀！！
小明：为什么？（心理想为什么他现在是我爸爸？）
妈妈：这个还要讲为什么喔？快叫爸爸啦～（已经很凶了）
小明：不！不！我死也不叫爸爸（没想到爸妈已经离婚了）
妈妈：快去叫爸爸啦！死孩子！快跟爸爸说水电工人来修理厕所了！
小明：@#$%^&*

(6)에서는 여자 아이가 화장실 변기 고치러 집에 찾아온 아저씨를 자신의 친아버지인줄 알고 오해한 것이고, (7)에서 小明은 화장실 고치러 온 아저씨가 엄마랑 재혼해서 자신의 계부가 된 것으로 오해하면서 생긴 이야기다.

'叫'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구에게) 인사해라'라는 해석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다.[13] 사전대로 풀이대로 하면 "叫爸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아빠를 불러라"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빠라고 불러라"라는 뜻이다. 후자는 결국 중국어에서 "아빠한테 인사드려라"라는 말이 된다. (6), (7)과 같은 이야기는 재미를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영화『三城記』[14] 가운데 호칭을 이용해서 첫인사하는 장면을 하나 더 살펴보자. 극중 어린이 배역인 玉兰, 桂兰 두 자매의 엄마(이하 汤唯)가 두 딸에게 인사하라고 시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8) 汤唯：玉兰, 桂兰, 叫仇大姨!
女儿：仇大姨!

성(姓)이 仇인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汤唯는 아이들에게 인사드리라는 의미로 "叫仇大姨"라고 말한다. 직역하면 "仇大姨라고 불러라"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仇大姨에게 인사드려라"라는 뜻이다. 이때 아이들은 굳이 "你好"라고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仇大姨"라고 부르는 것이 인사가 된다. 중국인은 상대방의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15]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아주머니한테 인사드려라"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할 때, '인사'라

---

13) 叫 1.[동사] 외치다. 고함치다. 소리지르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2.[동사] 부르다. 불러 오다. 호출하다. 3.[동사] 요구하다. 명령하다. …시키다. …하게 하다. 4.[동사] 하소연하다. 간곡히〔간절히〕 말하다. 5.[동사] (가져오라고) 시키다. 주문하다. 6.[동사] (동물이) 울다. 짖다. 지저귀다. 7.[동사] (…라고) 하다. 부르다. 불리다. 불릴 만하다. …할 만하다. 8.[동사] 윤허하다. 허용하다. 허가하다. 9.[형용사][방언] (일부 우는 소리가 비교적 큰 가축의) 수컷의. 10.[개사] …에 의해서. [피동구에 쓰여서, 동작 행위의 주체를 끌어오며, '被(bèi)'·'让(ràng)'에 상당함], Daum 중국어사전.

14) 우리나라에서『세 도시 이야기』(A Tale of Three Cities)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张婉婷감독, 汤唯 주연의 2015년 작품.

15)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상점에 갔을 때, 그곳에 젊은 여성 점원이 있는 경우,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에게 '언니한테 이것 달라고 해!'라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젊은 여성을 '언니'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젊은 여성을 부를 때 '姐姐'라고 부르도록 시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姐姐'라고 부르지 않고 '阿姨'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아이의 '언니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머니뻘'로 여긴다.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습관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송지현, 2006, pp.365-366)

는 낱말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어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아주머니한테 인사드려라"라는 표현은 "叫叔叔", "叫阿姨"라고 말하면 된다.

3)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첫인사

중국어에서는 상대방의 직함이나 호칭을 부르는 것이 인사가 된다. 첫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성씨를 묻는 것으로 첫인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이 따로 안부를 묻는 인사말을 해야 한다. 우리말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말 없이 그냥 '김 선생님, 박 사장님'과 같은 직함이나 호칭만 가지고 인사한다면 상당히 어색한 대화가 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첫인사가 있고, 일본어에는 "初めまして" (하지메마시테)라는 말로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한다. 중국어에도 "初次见面"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初次见面"이라는 표현은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재에 등장하거나, 한국 또는 일본의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첫인사 하는 장면을 더빙한 대화에서 들을 수 있을 뿐 중국인들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중국어에서는 "您贵姓?"이라는 질문이 첫인사가 된다. 鄧小平과 관련된 유머를 하나 살펴보자.

(9) 八十年代，邓小平访美，召开记者招待会，正好翻译不在，美国老记想考考邓小平的英语水平，便说：请问美国第一任总统叫什么名字？邓小平心想按中国人的习俗，见面应该先问姓，便操着四川口音说：我姓邓（Washington）。

美国老记大吃一惊，但转念一想，这个问题太简单了，便又说：请问，您夫人和孩子到美国都干了些什么？邓小平又想问完姓，该问名了吧，就回答说：小平（shopping）。

老记们连忙追问：那么他们是用什么交通工具？邓小平又按中国习俗，认为他们在问年龄，就回答：八十（bus）。

老记哗然，继续问道：那么台湾下一任总统会是谁？邓小平等来等去，翻译还没有来，便回答说：你等会（李登辉）。

老记再次哗然，这么敏感的政治问题也回答得如此轻松？便又问：那李登辉后边呢？邓小平有些不耐烦，说：随便（水扁）。

老记们看看翻译快要来了，便抓紧时间问最后一个问题：您觉得21世纪初世界面临的最大问题是什么？邓小平极其不耐烦，心想这些美国记者们怎么这么不识趣，没完没了的问个不停，沉下脸反问道：啥子（SARS）？

二十多年后，美国记者感慨说：邓小平真是一代伟人，料事如神![16]

위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물으면서 첫인사 한다는 내용에서 사회문화적 습관을 배울 수 있고, 또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물과 사회에 대한 수업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명과 비슷

16) http://www.qiushibaike.com/article/107350333

한 발음의 낱말을 활용한 것을 통해 해음(諧音)이라는 언어학 지식을 가르치면서 중국어의 재미와 매력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사회와 중국문화에 대한 학습은 문화관련 교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유머 속에서도 얼마든지 중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위 이야기 가운데서 중국인들의 인사법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 내용 가운데 "邓小平心想按中国人的习俗, 见面应该先问姓"이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중국인들의 첫 만남에서 "您贵姓?"이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의 성씨를 묻고 난 후에는 상대방의 성씨에 직함 등을 붙여 이름을 불러 주는 것으로 첫인사를 대신한다.

따라서 위의 유머에서도 미국기자가 영어로 질문한 내용을 못 알아들었지만 "您贵姓？"이라고 물어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자신있게 "我姓邓"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见到你很高兴"와 "认识你很高兴"도 첫인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고 통성명을 한 후에 하는 인사말이지 이름도 묻기 전에 먼저 건네는 인사는 아니다. "见到你很高兴"와 "认识你很高兴"이 우리말의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용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이름을 물으며 첫인사를 하는 문화는 영어권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Nice to meet you"라는 인사말보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17] 아래 예문 (10)은 영화 『34번가의 기적(Miracle on 34th Street)』[18] 가운데 꼬마 주인공 Susan이 산타클로즈 할아버지 Kriss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나눈 대화다. 두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첫인사를 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에 헤어지는 인사로 "Nice to meet you"라고 이야기한다. 영화 스크립트 일부를 살펴보자.

(10) 『34번가의 기적』(Miracle on 34th Street) (24분20초~27분06초)

Susan: Hello, sir.
Kriss: Oh, how do you do? Would you like to come sit on my knee?
Good. Up you come. Now then, <u>what's your name?</u>
Susan: <u>Susan elizabeth walker. What's yours?</u>
Kriss: Mine? Ha ha ha ha. Well, I have lots of names.
Uh, Kriss kringle, Santa Claus, father christmas, saint nicholas.
If you were in holland, I'd be sinterklaas, or in italy, le befana.
I have to speak many languages because, of course, I travel a great deal.
Susan: My mother's Mrs. Walker. She's director of special events for cole's.
Kriss: Uh-huh.
Susan: She runs the parade. I know how this all works. You're an employee of cole's.
Kriss: That is true.
Susan: But you're a very good Santa Claus. Your beard's stuck on real tight.

---

17)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 1989), 『노팅힐』(Notting Hill, 1999) 등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인사를 대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18) 레스 메이필드 감독, 리처드 애튼버러, 마라 윌슨 주연의 1994년 작품.

	Usually the store Santa Claus whiskers are too loose. Yours look realistic.
Kriss:	That's because they are real. You give them a tug. Whoo! Ha ha ha. Are you convinced?
Susan:	Mm-hmm.
Kriss:	Good.
Susan:	This isn't the regular Santa suit, is it?
Kriss:	Oh, no. This is the real Santa suit.
Susan:	It's very nice.
Kriss:	I agree. Lovely. Gold buttons, gold thread. It's as real as me. Well, you ask your daddy if I'm real.
Susan:	I don't know where he is.
Kriss:	Well, he's …
Susan:	That's my friend Mr. Bedford. I don't have a dad anymore.
Kriss:	Ha. Well, now, what can I get you for christmas?
Susan:	Nothing, thank you.
Kriss:	Nothing?
Susan:	My mother buys my gifts if I don't want something too stupid or dangerous or.. Hi, mom.
Dorey:	Hi. It's nice to see you again.
Dorey:	Susan, you've taken enough of this man's time. There's a long line of customers, and they do come first.
Kriss:	Nice to meet you, Susan.
Susan:	Nice to meet you, too.
Kriss:	Bye-bye.

위 대화를 문맥에 맞게 해석해 보면 마지막 부분의 “Nice to meet you”는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Nice to meet you”라는 표현은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도 첫 만남 후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많이 쓰인다. 물론 만나자 마자 건네는 인사말도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건네는 인사말은 “Nice to me et you”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

우리나라 학습자들도 분명 영어 교재 속에서 이름을 먼저 묻고 “Nice to meet you”라고 첫인사 하는 대화를 배웠지만 한국의 언어습관에서는 이름을 묻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Nice to meet you”라는 인사부터 건네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습관이 외국어 학습을 간섭하는 사례로 개인의 이름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식 인사법이 문화간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묻기보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오던 습관 때문에 중국어나 영어를 배우고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 않고 먼저 “见到你很高兴”, “Nice to meet you”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문화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문

화를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동영상이나 음성파일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적 차이를 직접 느끼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국어와 사회 문화의 간섭을 떨쳐 버리고 문화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나오는 말

호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부르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첫인사를 대신해서 이름을 묻고 대답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칭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및 친밀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떠올린다. 문자로 나타나는 언어 텍스트의 뜻만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빙산 보고 그것을 빙산 전체라고 생각하고 것과 같다.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의 나머지 부분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19]

외국어를 배울 때 교재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낱말 하나를 배우더라도 낱말의 발음과 의미 등 언어적 요소 이외에 그 낱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 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학습해야만 문화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텍스트만 암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수면 아래 감춰진 문화를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문화를 학습하고 문화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외국어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모국어의 간섭 가운데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간섭은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형화 된 대화 뿐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의 대사 그리고 유머와 만화를 활용하여 실제 중국인들의 언어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칸짜리 만화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문화요소를 찾아내고, 짧고 간단한 유머 속에 감춰진 웃음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중국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어의 언어 맥락(context)을 이해하고 중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어를 보고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나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기호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각각의 기호가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동시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

19) 최은희, 2011, p.151에서도 문화수업을 위한 또 다른 빙산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는 자세로 문화소통능력을 키우고, 우리와 다른 중국문화의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낼 때 보다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Council of Europe, 김한란 역,『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2010.

김은희,「중국어 교제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 중국어의 문화적 요소와 중국문화의 언어적 요소」,『중국인문과학』, 제40호, 중국인문학회, 2008.

맹주억,「중국어 교육 중 문화교육의 원칙에 대하여」,『中國言語研究』, 제34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11.

박종한,「문화교육의 현주소 — 교육내용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5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2.

_____,「문화의 정의 — 문화 연구와 교육의 정초(定礎)를 위한 탐색적 연구」,『중국어문학논집』, 제8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3.

송지현,「중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 — 어휘와 문법구조로부터 나타나는 간섭」,『중국어문학지』, 제22집, 중국어문학회, 2006.

_____,「모범답안의 굴레와 규범을 이탈한 중국어 교수법」,『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7호, 중국어교육학회, 2013

楊德峰,『漢語與文化交際』, 商務印書館, 2012.

游汝傑·鄒嘉彦, 변지원 역,『언어로 본 중국사회(社會言語學教程)』, 차이나하우스, 2008.

이금희,「문화콘텐츠와 중국어 교육의 소통 가능성에 대하여」,『중국학보』, 제77집, 한국중국학회, 2016.

조관희,「한국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실용 중국어'에서 '문화 중국어'로」,『중국어문학논집』, 제5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畢繼萬,『跨文化交际与第二语言教学』,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9.

최은희,「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문화교육의 내용 선정 및 수업 지도방안 고찰」,『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4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跨文化交际能力, 对外汉语教学, 称呼, 问候, 幽默, 语境
	영문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appellation, greeting, humor, context

Teaching Chinese for Improv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 Focusing on Appellations and Greetings

Song, Ji-Hyu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other culture and communicate effectively in various cultural context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ICC is the core value to take part in a given social context by understanding what is being communicated and by employing appropriate language and behavior to convey an intended message. It needs a complex activity that combines several ablilities and incorporates both cross-cultural expertise and language skills.

For developing ICC, Chinese language teachers and learners can use movies and dramas that deliver looks, expressions of actor or actress, and language context. Short humor and cartoons also can help it.

This paper is written to develop this competence in order to take part in successfully among people in a given social context.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송지현 / 宋之賢 / Song, Ji-Hyun		
	소 속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과		
	Em@il	seoulbeijing@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8월 02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